

# 시대에 맞는 미디어 선교

제출자 : 김 성진 (James Kim)

지도교수 : 임 바울 목사 (Paul Huisu Yim, Th. D.)

Master of Divinity (M. Div.)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 목 차

서론	7
<b>1. 들어가는 말</b>	<b>11</b>
1) 개신교 계파와 선교	11
2) 현대선교의 다양한 신학적 양태	13
(1) 자유주의 선교이론	13
(2) 복음주의 선교이론	13
(3) 개혁주의 선교이론	14
3) 서론	15
<b>2. 현대선교와 IT</b>	<b>21</b>
1) 전방개척 선교에 IT 를 왜 적용해야 하는가?	21
2) IT 를 통한 선교의 비전 강화	24
3)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	26
4) 소셜 네트워크 사용의 필요성	27
5) 소셜 네트워크별 특징	28

6) 소셜 네트워크의 선교적 활용	30
7) 소셜 네트워크와 선교지원	32
<b>3. 미디어의 이해와 발전</b>	<b>34</b>
1) 미디어의 발달 과정	35
2) 인간 기능의 확장으로서 미디어	37
3) 원자(Atom)에서 비트(bit)로의 변화와 뉴미디어	39
A) 미디어에 대한 인식	42
B) 미디어의 실재	45
C) 미디어 사역	45
4) 뉴미디어와 인간의 종속	46
5) 현대문명의 최첨단 미디어와 접목된 선교차원의 부정적 문제 해결방향	50
<b>4. 세계화와 매스 미디어</b>	<b>54</b>
1) 세계화의 정의	54
2) 매스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	56
3) 매스 미디어에 의한 세계화의 두 종류	59
A) 원심적 세계화	59

B) 구심적 세계화	61
<b>5. 현대 문화의 특징</b>	<b>68</b>
1) 비주얼	68
2) 재미를 최우선으로 추구	71
3) 선교적 현안	73
4) 재미만을 추구하는 뉴미디어 시대와 개혁주의 복음과의 차이에 대처해야 할 점	76
5) 하이브리드	79
<b>6.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선교를 위해 고려할 점</b>	<b>85</b>
1) 수신자 중심의 미디어	85
2) 복음도 하나의 콘텐츠로 존재	89
<b>7.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선교</b>	<b>90</b>
1)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선교인재로 양성	90
2) 선교적 교회에 기반을 두는 미디어 전략	92
3)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에 대한 대비	95
4) 소셜 미디어를 교육 선교에 적용	96
<b>8. 하나님 나라와 비유</b>	<b>98</b>
1) 비유의 의의	98

2) 겨자씨 비유 \_\_\_\_\_ 101

**9. 나가는 말** \_\_\_\_\_ **103**

## 감사의 글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끼리는 종파와 교단이 다르며, 성경 해석의 차이가 다소 있을지라도 대응(對應)보다는 화합과 인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면서, Post-modernism 사회에서 철저한 역사적 정통 교리의 필요성과, 바른 성경해석을 위해서는 진지한 싸움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다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 구하는 일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맡아주고 이해해준 나의 아내 김 현아와 딸 아영이와 아들 아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형태의 시간 약속들을 나의 수강시간과 공부시간을 피해 정해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서론

이 논문에서 필자는 25 년이상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인으로서, 신문과 라디오 그리고 TV 등에 방송 진행자 및 평사원에서 방송국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자에 이르기까지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를 선교와 어떻게 연결하고 문화 상품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방송을 진행했던 방송인으로서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필자가 한 때 밤에 진행했던 음악 프로그램에서의 한 경험은 나를 방송 선교사의 꿈을 갖게 하였다. 한 여성 애청자가 진행자인 나에게 음악방송을 약 3 개월 청취하면서 직접 짠 털 조끼와 사연을 적은 편지와 함께 소포를 보내 주었다. 사연은 이렇다. 그녀는 20 대 후반으로 한국에서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 전 아이를 갖게 되었으나 남자 친구 집안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여 미혼모가 된 상태에서 아이까지 뺏긴 상황이 되어 비관 끝에 무려 3 번의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실패하고 가족의 권유로 미국 워싱턴 DC 로 잠시 여행 온 가운데 우연히 필자가 진행하는 방송을 듣게 된 것이다. 그녀는 차라리 미국에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듣던 중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얻고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사연의 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는 방송인인 나에게 크나 큰 도전을 갖게 만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당신은 나를 죽음에서 살게해 준 생명의 은인이다'라는 말이다. 필자는 이에 방송 선교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온던 중 신학교를 입학하여 이렇게 졸업 논문을 쓰기에 이르렀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한다. 고문서에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미디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손 안에 작은 PC 로 불리는 스마트 폰을 통해 향후 미디어 산업은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럭비공같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디어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있으며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은 감소하고 있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 급속하게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와 관련하여 세계화를 원심적 세계화(Centripetal Globalization)와 구심적 세계화(Centrifugal Globaliz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원심적 세계화는 각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스스로 세계화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구심적 세계화는 주로 서구의 미디어 기업들이 문화 상품을 제작하여 비 서구국가들에게 판매하면서 이루어진다.

미디어를 통해 개인과 기업, 서구와 비서구 양방향에서 진행되는 세계화는 독특한 현대 문화를 창출하였다. 먼저는 비주얼(Visual) 문화이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활자보다는 다양한 화면이 움직이는 동영상 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미디어가 입체 영상(3D)은 물론 가상(상상)의 환경이나 상황 등으로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며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하게함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가상현실<sup>1</sup>을 제공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인해 일반인들은 갈수록 재미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복잡한 논리보다는 전세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상품을 통해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서 최고의 재미를 맛보기 원한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는 갈수록 하나의 순수한 전통 문화는 사라져 가고 있으며 각 미디어는 개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미디어들과 연합하여 하이브리드(Hybrid)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 문화의 복잡 다단한 상황 가운데 매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유대인으로서 일평생을 살았다. 그는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특별히 예수는 동시대에 대중적인 대화 방식인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수의

---

<sup>1</sup> **가상현실**(假想現實)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선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현대 문화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지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성경과 그 복음은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는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의 형태가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고, 아울러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결합은 뉴미디어라고 통칭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미디어의 시대를 열었다. 인터넷의 출현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은 우리를 지금까지 아날로그 시대의 미디어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로 이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미디어 선교란 무엇일까? 그것은 통전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와 기성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위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용도를 개발하여 선교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미디어는 세상에 출현하여 인간 소통에 유익한 점이 발견되면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삶 속에서 각각의 영역을 구축해왔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든 미디어와 아울러 미디어가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파악하여 복음전도와 선교에 활용 하는 것이 미디어 선교라고 볼 수 있겠다.

미디어를 통한 선교가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변화의 물결을 잘 수용하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는 이 시대의 미디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더 든든히 하고 확실히 해야 한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온전한 복음이다.

오늘의 시대를 정보시대라고 일컫지만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발달한다고 하여도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 할 수 없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달방법이 필요하기에 이 시대의 미디어를 연구해야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복음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1. 들어가는 말**

### **1) 개신교 계파와 선교**

우리시대에 '선교'라는 용어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이 기독교 초기부터 사용된 말은 아니었다.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가 복음전파이므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는 선교라는 말이 말씀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있어서 선교라는 용어는 인간의 종교적 열정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물질적 봉사의 영역으로서 선교를 요구하도록 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주로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경향이다.

본래 선교학의 유일한 근거는 신구약 성경이다. 성경의 요구와 가르침에 근거하여서만 선교의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교학이 현대교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이래 선교학은 성경중심으로 발전되기 보다 세계 속의 급변하는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을 기초로 한 교리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도 종교적 자기 열정이나 결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고백의 틀 위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은, 미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바 된 백성들을 찾아 그 고백을 전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현대선교의 다양한 신학적 양태들을 간단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개신교의 여러 종파와 다양한 주의에 따라 달라지는 사상과 논리 그리고 행태에 대해 일단 한쪽에 의존하거나 융합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이 거대한 최첨단 미디어들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와 장단점 그리고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성격과 종류의 미디어의 어떤 면이 가장 적합하게 선교와 연결 될 수 있는지에 그 중점을 두었다.

## 2) 현대선교의 다양한 신학적 양태

### (1) 자유주의 선교이론

자유주의 선교이론은 교회의 안팎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세상통치를 의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여 인본주의적 해석을 가미하고 있다. 기독교 내부에서 상황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사회과학적인 면이 과대하게 강조되었다. 최근에 들어와 신학의 타학문 분야에서 이에 대해 자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신학이 없는 선교학에 대한 비판과 성경을 도외시한 사회과학 쪽으로 치우친 선교학 연구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2) 복음주의 선교이론

복음주의 선교이론의 특색은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과 참여에 있어서 인간 즉 지상교회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선교실적을 논하게 된다. 그들은 선교활동 자체가 인간의 공적이 되며 그 공적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외적인 활동으로 인한 선교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한다.

복음주의 선교학에서는 소위 기독교화(Christianization)에 치중하여 기독교의 영역을 넓히는 것에 힘을 쏟는다.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에 대한 교훈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 대신 보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주로 강조하며 하나님을 이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고유한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보다 인간의 자기연민에 기인한 감성적 사고의 결과일 따름이다.

## (3) 개혁주의 선교이론

개혁주의 선교이론에서는 구원과 선교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여할

뿐이다. 개혁주의 선교이론에 있어서는 외적인 결과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반성하게 된다.<sup>2</sup>

이에 필자는 위에 열거한 다양한 주의의 특색과 사상들에 현대 미디어를 맞출려고 하는게 아니라 최첨단을 걷고 있는 현대 미디어들도 하나님의 섭리아래 때에 따라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와 선교의 연결을 위해 연구하였다. 그 다음 방송 선교 또는 현장 선교 때 필자는 개혁주의 사상의 복음 전파를 할 것이다.

### 3) 서론

미디어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도구로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탄생하고 발전되었으며, 기독교는 이와 같은 미디어를 복음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왔다. 인간을 죄악의 삶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길은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인간에게 계시되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어떤 주제에 대한 해석이나 해설을 전문가를 통해

---

<sup>2</sup>[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KtHW&artid=8534341&categoryId=510287&regdt=20090124230017](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KtHW&artid=8534341&categoryId=510287&regdt=20090124230017) 개혁주의 선교원리에 관한 논의 (이광호 목사)

알게 되듯이 성경도 성령안에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sup>3</sup>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롬 10:17),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라고 반문한다. 듣지도 못한 이가 믿게 되기까지는 그 시초에 전파하는 자라는 매개체(미디어)가 있었으며, 이를 통한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복음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디어와 늘 함께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0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서 발표된 케이프타운 서약에는 이 시대의 선교가 어떤 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담고 있는데, 이 서약의 서문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변하는 실재들’(The realities of change)과 ‘변하지 않는 실재들’(Unchanged realities)로 표현하고 있다.<sup>4</sup>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실재들’이다. 성경이 묘사하는 비참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는 현재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

<sup>3</sup> <http://blog.daum.net/sea39/16902801> 개혁주의 성경해석(유성두목사)

<sup>4</sup> <http://www.lausanne.org> 케이프타운 서약 서문 참조.



존재들이다”라고 선언한다. 여전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오직 그리스도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교회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을 둘러싼 문화와 삶의 형태는 변화하고 있다. '변하는 실재'가 그것이다. 서약문은 우리의 삶과 사고, 그리고 대부분의 삶의 방식들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좋은 삶은 우리는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정치적·경제적 힘의 균형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성경과 그 복음은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는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의 형태가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고, 아울러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결합은 뉴미디어라고 통칭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미디어의 시대를 열었다. 인터넷의 출현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은 우리를 지금까지 아날로그 시대의 미디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로 이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비유컨대, 1,740 톤의 연료탱크를 부착한 우주왕복선에 일곱 명의 우주인이 앉아 있다. 이 연료가 엔진을 통해 잘 제어된다면 우주왕복선은 그들을 대기권 밖 우주로 데려가 줄 것이다. 하지만 제어되지 못한다면 그 참사는 명약관화하다. 이 시대의 미디어가 가진 잠재력과 능력도 마치 이와 같다.

구글(Google)의 CEO 인 에릭 슈미트 (Eric Schmidt)는 “인터넷은 인류가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라고 한다.<sup>5</sup> 우리가 가진 이 새로운 미디어의 잠재력과 이를 통한 우리 삶의 영향력은 현재의 상황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재로 애플의 CEO 였던 스티브 잡스(Steve Jobs)<sup>6</sup>가 세상에 없던 아이폰(iPhone)이라는 스마트폰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이 작은 기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기술적 산물이 그러하듯이 스마트 기기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폐해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미디어 선교에 관련된 부분만 생각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지금까지 미디어 선교를 간략히 살펴보고 나아가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선교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볼 것이다. 에릭 슈미트는 위의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진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이나 악 중 어떤

---

<sup>5</sup> Eric Schmidt, Jared Cohen, 이진원 역, 『새로운 디지털 시대』 (서울: 알키, 2013), 9.

<sup>6</sup> 미국의 기업가이며 애플 사(社)의 창업자. 그는 1980년대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아 개인도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열었고, 2007년 스마트폰을 내놓아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목적을 위해 쓰일지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sup>7</sup>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옳다. 우리가 오늘의 미디어를 선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미디어라는 칼의 손잡이를 잡느냐 아니면 칼날을 잡느냐와 같다. 우리가 미디어라는 칼의 손잡이를 잘 잡고 그 예리함을 잘 사용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변화시키는 아주 유용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의 미디어를 잘 이해하여 선교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논문은 현대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어떻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교를 구체화할지에 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본론의 첫번째 부분은 세계화와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현대 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은 실로 다양한데 그 모두를 이번 논문에서 다룰 수는 없고 세계화와 매스 미디어가 현대 문화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 각각 그리고 연관시켜 탐구할 것이다.

---

<sup>7</sup> Eric Schmidt, Jared Cohen, 『새로운 디지털 시대』, 22.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현대 문화의 특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세계화된 현대 문화는 비주얼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재미를 최우선시하며 하이브리드적인<sup>8</sup>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선교적 현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은 현대 문화에 대한 선교적인 대응이다. 그 방법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도출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문화를 배격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선교 방식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잠식해 들어오는 현대 문화 한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종국에는 완성될 하나님의 선교는 정글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과 현대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도시인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현대 문화를 피할 수도 없고

---

<sup>8</sup> 하이브리드(hybrid)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을 말하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치면 하이브리드라고 일컫는다.

피해서도 안되며 아울러서 그 모든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대신 현대 문화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에 신실하게 동참해야 한다.

## 2. 현대선교와 IT

### 1) 전방개척 선교에 IT 를 왜 적용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어떤 측면에서는 IT 를 선교에 활용하는 하나의 툴 정도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교계에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에 정보사회로 진입했고 이를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사회의 기능과 전략을 IT 와 정보사회에 맞추어 진행해왔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IT 를 선교에 접목시키는 것은 이제 하나의 툴 정도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IT 를 미전도종족 선교 전략에 적용해야 하는 다음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바울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7)고 했다. 바울은 옥중에서 많은 생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각과 같이 속히 오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8)고 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이

속히 임하실 줄 알고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은 바울의 목회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현재의 IT 보다도 훨씬 더 발전 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미래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모른다. 단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IT 와 정보사회로 불리는 현재와 미래의 사회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 사회이다. 우리가 선교전략을 연구할 때 대부분이 문화와 관계가 있는 영역이다. 즉 문화를 모르면 선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와 통신의 만남으로 IT 사회는 한 국가와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두 가지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셋째, 복음이 전 세계를 돌고 다시 유럽을 겨냥하고 있다. 다시 찾아온 유럽은 옛날 17-18 세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딤후 3:5)라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 중의 하나를 지적했을 때와 같은 모습이다. 이제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과 IT 를 가지고 철저히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넷째, 선교는 선교사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IT 문화로 탄생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기존의 국가나 단체가 주도하여 이끌던 이념과 문화의 중심이 SNS 사용자에게 상당한 부분이 넘어가게 되었다.

아울러 교회의 문화나 복음 전달의 중심의 축이 지금까지 대형교회나 목회자에게 쏠려있었다면 이것이 각 크리스천 개인에게 상당 부분 이전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또 한번의 복음전달의 기회를 얻게되었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SNS 를 통하여 얼마나 복음전달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해외 선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방에서 할 일과 후방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 우리는 너무 전방에만 치우쳐 있는지 모른다. 전방은 후방이 든든할 때 잘 지켜지고 잘 싸울 수 있는 것이다. IT 와 컴퓨터 문화로 탄생한 SNS 와 같은 기능들은 전방 개척선교사들에게 든든한 후원의 방법이요 함께 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제 선교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이루어가고자 해야 한다.

바울은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와 바나바를 함께 데리고 갔다. 1 차 선교여행 때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2 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다. 선교는 개혁이며 개척이지만 남아서 누군가 목회를 해야 한다. 목회가 지속되지 않으면 성도가 양육되지 않는다. 오늘날 선교사는 개척선교와 목회선교가 함께 가고 있다.

페인(J. Barton Payne)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잃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며, '선택'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방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요,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데 있다.<sup>9</sup>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목회의 방법과 협력, 위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동역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

## 2) IT 를 통한 선교의 비전 강화

다음 두 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황화(contextualization)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1950 년대 이후 선교신학에 영향을 준 상황화는 신학교육기금(TEF)이다. 이 개념은 제 3 세계에서 어떻게 신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학이다. 이 신학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1970 년대라고 볼

---

<sup>9</sup> 오병세, 구약에서 본 선교, 총신대학, 1983. P57.



수 있다. 선교신학 분야에서도 여러 상황화에 따른 신학들이 속출했는데, 남미 중심으로 나타난 해방신학<sup>10</sup>이 그 중의 대표적인 예다.

해방신학은 부분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이 지주들과 군사독재정권에게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sup>11</sup> 라틴 아메리카 자체가 미국의 식민지적 역할에 고정되어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의 일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민중의 편에 서시는 민중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해방신학을 말하고 민중신학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끌어낼 수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른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IT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T와 컴퓨터 통신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는 특정 지역의 상황화이지 신학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보화 사회와 미래 사회에 대한 좀더 넓은 의미의 공론화가 되어할 시점이 되었다.

이태웅 박사는 '한국 선교신학의 발제'에서 네번째로 '선교의 원동력은 성령이시다'라고 전제한 뒤 지금은 하이테크 시대라서 많은 현대장비와 사회과학적인

---

<sup>10</sup> 해방신학은 상황신학으로서 신학이 갖는 원리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가 겪는 상황에서 비참한 정치, 사회적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신학으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다.

<sup>11</sup> 브라질의 경우 국민의 10 퍼센트밖에 안 되는 특권층이 독일의 32 배나 되는 넓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은 소작인도 아닌 농업노동자로 전락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론들을 선교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등을 돌린다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를 한다는 뜻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둘째, 비 거주 선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권은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대상으로는 대부분은 종교와 관련된 것이며 상대가 거의 기독교쪽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지역은 전통적인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일수록 전문인 선교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전문인 선교사도 쉽지만은 않다. 복음과 직업사이에서 힘들어지고 있고 전문인 선교사라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중국이 서방과의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몇 십 만의 요원을 양성<sup>12</sup>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복음에도 사이버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에 틀에 얽매어 전통적인 선교만 고집하지 말고 비 거주 선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 3)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

컴퓨터와 통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탄생했다. 그리고 통신은 유선 개념에서 무선으로 발전하였다. 유선 시대의 통신은 오피스 개념으로 활용되었다면 무선 시대의 통신은 개인이 휴대하는 핸드폰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탄생한

---

<sup>12</sup> 아시아시대의 중국 전문 인력 개발 전략, 강일규 김종우, 제 3 장 중국 전문 인력 수요와 양성 실태, 제 1 절 고등교육기관의 중국 인력 양성, 5. 사이버 교육, p86

서비스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인 미디어는 기존의 언론이 다루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며 사회 문화를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축이 되었다.

SNS는 2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었던 이들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1인 커뮤니티라고도 불린다.

#### 4) 소셜 네트워크 사용의 필요성

스티브 잡스는 "평생 설탕물이나 팔 겁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세상을 바꿀 겁니까?"라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는 위대했다. 그러나 토머스 에디슨처럼 위대한 발명가는 아니었다. 그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에서 기회를 포착했고 너무 기술적인 것들을 어린 아이도 쉽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시켰다. 그는 첨단기술에 사람의 얼굴을 입힐 줄 알았던 것이다.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인텔의 사용자경험연구소장 제네비브 벨 박사는 "현대인들은 지루할 틈이 없어졌고, 그 대신 넘쳐나는 일로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벨 박사는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에 뇌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며 “결국 지루함은 한없이 매력적인 주제이며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벨 박사가 말하는 지루함이란 멍하게 인터넷을 클릭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온전히 하는 일 없이 뇌가 쉬는 시간이다. 샤워를 하거나, 잔디에 물을 주거나, 운전을 할 때에도 그렇다. 유독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끼는 시간들이다.

IT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카 씨도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sup>13</sup>에서 “디지털 기기에 생각하는 능력을 ‘아웃소싱’하면서 뇌가 창의적인 생각을 찾아내기보다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급급하게 된다”고 썼다.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만 쓰다 보면 뇌의 해당 영역만 비대해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일부는 본능적으로 디지털 기기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다. 벨 박사는 “최근 연구에서 일부 사람이 지속적인 디지털 세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 5) 소셜 네트워크별 특징

---

<sup>13</sup>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저자 니콜라스 카 | 역자 최지향 | 출판사 청림출판, 2011년 02월 19일 출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마다 특징이 있다. 친구가 많거나 자신의 글에 누군가 '좋아요'를 많이 클릭해 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도 일종의 욕망이다. 프랑스 철학자 라캉이 말하는 대로 "나의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된다. 타인의 욕망을 따라 살면 자신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은 사라지고 자신의 자아를 돌아볼 여유도 사라진다. 내게 비어있는 것을 추구하려는 에로스적 욕망만 있을 뿐이다. 친구가 많아지면 나름대로 만족하는 자기만족 사고에 빠질 수도 있다.

컴퓨터 자체가 가진 문화적 특성이 그렇듯이 SNS 만이 갖는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이미 컴퓨터를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 실존하는 것과 실존하지 않는 구분이 모호해 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존하지 않는 것과 실존하는 것 사이에서 늘 고민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실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대학 신입생 가운데 73%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친구'를 진정한 의미의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마케팅서비스기관인 '미스터 유스(Mr. Youth)'는 지난 2011년 가을학기 신입생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011년 8월 23일 밝혔다. 미스터 유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들은 SNS를 통해 사진(84%),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 69%), 관계 상태(78%) 등 상당히 개인적인 신상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sup>14</sup> 하지만 현재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나 구매 제품 등에 대해선 서로 공유하지 않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친구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 우정은 학교 같은 반, 동아리 등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면서 시작되지만 73%는 직접 만나서 함께 어울려야만 친구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 6) 소셜 네트워크의 선교적 활용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를 통하여 선교하려고 한다면 일단 접근 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활용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구축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블로그 형식의 한국내 회사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크인 네이버 me2DAY, 다음의 요즘, 네이트 커넥트 등이 있다.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링크딘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넥소피아가 캐나다에서, 비보, Hi5, 마이스페이스, dol2day(특히 독일에서), Tagged,

---

<sup>14</sup> 경향신문 2011년 8월 24일

XING, Skyrock(유럽 일부 지역)가 유럽에서, Orkut 및 Hi5 가 남아메리카 및 중아메리카에서, Friendster, Multiply, Orkut, Xiaonei 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각각 지역별로 인기가 높다.

둘째는 각 선교 홈페이지들을 소셜화 하는 방법이다.

홈페이지가 소셜화 한다는 것은 소셜 커뮤니티 홈페이지와 소통 될 수 있는 방법(아이콘 화)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최적화 시켜야 한다. 아울러 RSS 화 시켜야 한다.<sup>15</sup> 아울러 크리스천 개인이나 목회자, 교회가 개인 블로그 형식으로 소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블로그는 워드프레스(WordPress)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워드프레스는 설치형 블로그로 독립적인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으면서 Rss 기능과 스마트폰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셋째는 선교사, 선교내용, 단체들을 소셜화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홈페이지에 묶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각의 선교사 단체들의 홈페이지가 존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

<sup>15</sup>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는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 표현 방식이다. 웹 사이트 관리자는 RSS 형식으로 웹 사이트 내용을 보여 준다. 이 정보를 받는 사람은 다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RSS 리더에는 웹기반형과 설치형이 있다. 웹기반형 리더는 간단한 계정등록으로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방식이다. 아울러 소셜이란 말이 주는 의미처럼 각각의 홈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7) 소셜 네트워크와 선교지원

이태웅 박사는 선교지원으로 세 가지 분야를 중요하게 꼽았다. '기도, 재정, 격려'이다.<sup>16</sup> 소셜 네트워크로 이 세 가지 선교지원 영역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

첫째 기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막 4:42(상))..." 또한 우리에게 기도해야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IT와 지식 및 정보사회가 이루어질수록 기도에 의지하지 않고 기술에만 의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소셜 네트워크는 선교현장의 정보를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지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신속히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sup>16</sup>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이태웅, 조이선교회, 1997, p232.



둘째, 재정이다. 성공적인 선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선교지에 교회가 서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자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피선교지의 교회를 언제까지나 선교사가 돌볼 수는 없는 일이기에 현지인 교역자를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개종한 신자들을 돌보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은 교회의 설립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자립책의 하나이다. 교회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선교지에 신학교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유망한 인재를 선교국에 초청하여 교육을 받게 하고 다시 현지로 보내어 사역토록 하는 길이 있다. 한국에 선교를 시작했을 초기에 일본 또는 미국에서 한국인 교역자, 교수요원을 유학토록 주선한 일이든지, 한국에 신학교가 설립될 당시 선교국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교수와 행정책임자 등이 신학교의 운영에 동참한 것 등으로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재정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셋째, 격려이다. 소셜 네트워크가 갖는 장점중의 하나가 개인 커뮤니케이션이다. 특히 페이스북같은 SNS 는 이러한 점에서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도 제목을 나눌 뿐 아니라 격려와 칭찬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하면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선교사들에게까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면 안식관<sup>17</sup>의 경우 선교사 개인이 여러 안식관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의 만남으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었다. 사이버 스페이스와 SNS 시대의 선교는 과거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예전에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어야 움직이고 가능하던 일들이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교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러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음전달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3. 미디어의 이해와 발전

미디어란 어떤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sup>18</sup> 그러므로 미디어라는 개념에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서 정보를 매개하는

---

<sup>17</sup> 안식년을 맞이하거나 다른 용무로 선교사 또는 가족이 일시 귀국 또는 해외 출장 중인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전제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대중 매체의 대표적인 예들이다.<sup>19</sup>

## 1) 미디어의 발달 과정

미디어의 발달과정으로 본다면 미디어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기 전에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미디어가 존재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왔다.<sup>20</sup> 인간의 언어와 문자는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이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구전으로 전승되었고, 이후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셨으며 양피지와 파피루스를 통해 필사본으로 말씀이 전해졌다.<sup>21</sup> 1445년 구텐베르그에 의해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고 인쇄된 성경을 갖게 되면서 활자 미디어는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미디어의 역사에서도 활자 미디어를 제 1기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쇄기의 발명은 책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와 같은

---

<sup>18</sup> <http://www.naver.com> 검색어: 미디어(Media), 윤승은, 『정보통신용어사전』 (서울: 일진사, 2008).

<sup>19</sup> 황병배, “미디어 선교를 통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선교신학』 제 26 집 (2011), 4.

<sup>20</sup> 김정탁, 『미디어와 인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5.

<sup>21</sup> 안홍철, “미디어는 메시지다?,” 『한국기독교공보』 제 2854 호, 2012.06.13.

미디어를 만들어 냈으며<sup>22</sup> 이를 통해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복제를 통해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1876년 알렉산더 그에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전신 전화를 발명하면서 제 2기 전파 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된다. 미디어는 이제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리 위주의 라디오가 중요한 미디어로 등장하였다.<sup>23</sup> 제 3기는 음성 위주의 정보 전달에서 영상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된 영상 미디어 시대이다.<sup>24</sup> 20세기에 들어 서면서 영화가 발명되고 이어서 텔레비전의 등장은 인간의 삶의 행태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미디어 발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미디어를 복음전달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활자 미디어는 기독교의 가장 오래 되고 주요한 미디어로 사용되었으며<sup>25</sup>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스테디 셀러(Steady Seller)이다. 1979년 존 헤이만(John Heyman)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진 '예수'는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되었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이 영화를 통해 2억 2천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

<sup>22</sup> 김정탁, 『미디어와 인간』, 15.

<sup>23</sup> 한상용, “뉴미디어 시대의 문화와 선교,” 『기독교사상』 제 38호 (1994.7), 40.

<sup>24</sup> 14) 조윤희 편저, 『정보사회론』 (서울: 신지원, 2013), 144.

<sup>25</sup> 정승현, “현대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 세계화와 매스 미디어에 대한 선교적 응답,” 『선교와 신학』 제 27집 (2011), 329.

알려졌다.<sup>26</sup>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디어도 소셜 미디어와 같은 뉴미디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복음의 대상자인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라디오, 위성,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 미디어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2) 인간 기능의 확장으로서 미디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였던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1964 년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이라는 저술을 통해, 미디어를 단지  
매체로만 보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 선구적 의미로 해석 하였다.<sup>27</sup> 맥루한은 이 책에서  
미디어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외부로 끌어낸 인간  
능력의 확장이라고 본다.<sup>28</sup> 맥루 한에게 매체(미디어)란 이 단어의 좁은 의미인 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발명품을 말하며, 이 매체에 적용된 기술  
(technology)과 기법(technique)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과 인간 몸의 확장이라고  
보았다.<sup>29</sup> 예를 들어 자동차는 발의 확장이며, 컴퓨터는 우리 뇌의 능력의 확장이다.

---

<sup>26</sup> Johannes Merz, "Translation and the Visual Predicament of the "JESUS" film in West Africa," i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ume XXXVIII, No. 2 (April 2010), 111.

<sup>27</sup>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New York: McGraw-Hill, 1964).

<sup>28</sup> 김정탁, 『미디어와 인간』, p167.

<sup>29</sup> Michael Frost, Alan Hirsch, 지성근 역,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IVP, 2011), 273-74.

인간이 만든 모든 기술이 인간의 의식과 신체에 결부된 기본적인 기능들을 확대하고 가속화하고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매개체이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모인 이들에게 설교할 때에 오직 자신의 언어와 목소리가 자신과 청중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미디어)였다. 따라서 그 범위는 목소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에 한정되었으며, 그 소리는 공간에 퍼짐과 동시에 사라졌다. 제자들은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미디어에 예수님의 소리를 저장했다. 그 소리는 이제 사라지지 않고 필사(복사)와 전달을 통해 보다 먼 곳의 많은 이들에게 들려졌다. 마이크와 스피커는 인간의 목소리를 확장하여 동시에 보다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카메라와 영상매체는 소리뿐만 아니라 현장의 이미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공간으로 전달한다. 뉴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sup>30</sup>은 인간이 어떤 장소와 시간에 있든지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미디어들은 선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윌터 윌슨(Wilster P. Wilson)은 *The Internet church*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한다.<sup>31</sup> 인터넷은

---

<sup>30</sup> 2007 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이동전화와 멀티미디어 기능이 결합된 기기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능형 기기가 테블릿 PC, TV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부분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을 통칭하여 스마트 기기 혹은 스마트 장치라고 한다. [http:// ko.wikipedia.org/86](http://ko.wikipedia.org/86)  
선교와 신학 32 집

<sup>31</sup> Wilster P. Wilson, *The Internet church* (Nashville: Word Publishing, 2000), page 8.

전세계에 퍼진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러한 변화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급진적 단절-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빠른 변화-이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실리콘 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이것은 인간의 발명이나 독창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발전들은 훨씬 더 거대하고 극적인 어떤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전혀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다-그것들은 대위임령에 관한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는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관된 것이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유지자이신 그 분께서 현대의 정보화 시대도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복음 전파가 땅 끝까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3) 원자 (Atom)에서 비트 (bit)로의 변화와 뉴미디어

MIT 미디어랩의 창립자이자 소장을 역임했으며 *Being Digital* 의 저자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교수는 1950년대 이전의 시대가 원자(Atom, 아날로그)시대였다면 오늘의 시대는 비트(Bit, 디지털)의 시대라고 하였다.<sup>32</sup> 원자에서 비트로의 변화는 단순한 향상이나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새로운

---

<sup>32</sup> Nicholas Negroponte, “디지털 컨버전스의 최전선과 미래전략,” 2004년 서울디지털포럼(SDF) 기조연설에서 인용.

변화이다. 구리와 주석이 용광로에서 녹여져 놋쇠라는 새로운 금속이 탄생하듯이 비트와 원자가 융합 하면서 컨버전스(Convergence)가 탄생한다.<sup>33</sup> 미래의 컨버전스는 비트와 원자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먼저 비트 시대의 미디어는 원자 시대의 미디어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sup>34</sup> 원자 시대의 아날로그 미디어는 복제와 이동 그리고 확산에 물리적인 제한이 있었다. 서적 필사의 경우 필사자의 실수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인쇄된 출판물이 필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지라도 전달과 확산에 시공간의 한계가 존재했다. 음성과 영상의 경우에도 복제를 거듭하면 화면은 흐려지고 음질은 나빠지는 열화현상(烈火現象)이 있었다. 하지만 비트 상태의 디지털 콘텐츠는 수백만 번 복제해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 더욱 빨라지고 확산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실시간의 무제한으로 전달된다.<sup>35</sup>

뉴미디어(New Media)란 기존의 미디어에 새로운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기술이 융합되어 보다 편리하고 진보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는 미디어를 말한다.<sup>36</sup> 뉴미디어

---

<sup>33</sup> 컨버전스라는 단어 자체에 융합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 기술과 성능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나오는 것을 컨버전스라고 한다. 전화기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기능이 합쳐져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예이다.

<sup>34</sup> 『조선일보』, 2013.7.5. C1 면.

<sup>35</sup> 여기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점은 논외로 한다. 88

<sup>36</sup> 조윤희 편저, 『정보사회론』, 144.



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종합화(Integration)이다. 각각의 개별 영역으로 존재했던 미디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화를 통해 통합 미디어, 즉 멀티미디어화 되었다. 둘째, 영상화(Visualization)이다.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기호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영상화된 정보전달 형태로 변화되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다. 기존의 미디어가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했던 것에 반하여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상호작용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넷째 비동시화 (Asynchronocity)이다.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자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탈 대중화(Demassified)이다. 매스 미디어가 익명의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데 반해 뉴미디어는 다품종 소량주의, 특정 계층을 목표 수용자로 한다.

뉴미디어 시대의 교회와 선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날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수단이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한다.<sup>37</sup>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보람의 폭을 넓히는 데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뉴미디어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도전의 자세가 시급 하다고 요청한다. 제 3차 로잔대회의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에서도 다원적이고

---

<sup>37</sup> 한상용, “뉴미디어 시대의 문화와 선교,” 50.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디어 분야에서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sup>38</sup>

우리는 미디어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로서 미디어와 테크 놀로지 분야에 비판적이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A) 미디어에 대한 인식: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수용하는 메시지와 세계관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 미디어는 중립적이며 때로는 복음에 우호적이지만 포르노, 폭력, 탐욕에 악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이슈들에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신자들이 그러한 압력과 유혹을 거부하도록 교육하며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sup>39</sup>

이렇듯 케이프타운에서 제시한 미디어 분야에 대한 행동 서약에서 기독교적 사고는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진리로 인식하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

<sup>38</sup> <http://www.lausanne.org/en/documents/ctcommitment.html> 케이프타운 서약, IIA.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증거하기, 4. 진리와 전세계적 미디어에서 인용.

<sup>39</sup> John M. Frame,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s Life*, P&R, 2008, p. 888-902

찾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생활 영성이다. 이러한 영성을 회복하게 될 때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풍성하고도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적 사고를 확고히 가지게 될 때 문화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문화 속에 나타나는 일반 은총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또한 죄성과 맞물려 있는 거짓 세계관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은 삶의 전 영역으로 파고드는 문화의 영향력 속에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하는 것이다.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돕는 일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차세대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준비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미디어의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신자들이 그러한 압력과 유혹을 거부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실제적인 강제성과 법적인 제한성이 없어 분명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렇다고 방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요소인 현대 문화와 미디어는 중독성이 강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중독성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요즘 현대인들에게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하다. 미디어가 하나님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미디어를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은 시청을 금지하거나, 연령이나 시청 시간대가 아닌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 등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신자들에게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단절이 필요한 것은 단호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절의 기반이 될 때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절제란 자신이 컴퓨터를 키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끌 줄 아는 능력이다. 미디어시대 속에 미디어를 무조건 단절할 수는 없다. 또한 미디어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유용하며,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 역할 또한 있기 때문에 절제를 기반으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된다. 매일 또는 1주일동안 미디어 시청 시간을 정해 놓거나 미리 볼 프로그램과 게임을 하기 위한 시간 계획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좋은 미디어 절제 습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단절과 절제가 이루어질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는 것이다.

B) 미디어의 실재: 일반적인 정보 미디어와 연예 미디어 분야에서 확실하고도 신뢰할 만한 기독교적 역할 모델들과 커뮤니케이터들을 발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수단들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자들을 격려한다.

C) 미디어 사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와 기성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위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용도를 개발한다. 우리 시대의 현대인에게 뉴미디어 상황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는 확장된 삶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바울이 그 당시 유일한 전달 수단이었던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연결될 네트워크의 확산을 허락하시고 준비해 놓은 전달 수단을 기꺼이 이용해야 한다.

#### 4) 뉴미디어와 인간의 종속

미디어의 역할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콘텐츠)을 가감하거나 변질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는 것이다. 또한 선교적 측면에서는 미디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뉴미디어는 그런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맥루한은 그의 책 『미디어의 이해』에서 “미디어가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sup>40</sup> 이 말의 숨은 의미는 이것이다. “우리가 도구를 형성해내고 그 다음에는 도구가 우리를 형성한다.”<sup>41</sup> 맥루한이 강조하기 원했던 것은 도구나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상호적 영향이었다. 콘텐츠에는 당연히 메시지가 녹아 있다. 그런데 맥루한은 미디어도 그 자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미디어가 단지 전달하는 매개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로 인간의 삶의 형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기존의 미디어도 메시지적 특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활자 미디어의 경우 집중력과 논리력을 필요로 하며 수신자로 하여금 능동적 선택을 요구한다. 음성 미디어인 라디오와 영상 미디어인 텔레비전, 영화 등도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미디어는 그 존재 자체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뉴미디어 시대의 스마트 기기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준다. 실제로 우리는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유익한 점과 동시에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미디어가 가진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해야 하지

---

<sup>40</sup> Marshall McLuhan,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28.

<sup>41</sup> Michael Frost,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274.

만, 동시에 뉴미디어를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했을 때 무턱대고 따라 가기보다는 지혜로운 사용방법을 잘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미디어가 교회와 선교에 도움만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기술은 미덕과 함께 단점도 가지고 있다. 케빈 켈리(Kevin Kelly)는 악덕이 없는 기술은 없으며 중립적인 기술도 없다고 한다.<sup>42</sup> 새로운 기술의 유익한 점이 클수록 해로울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의 새로운 미디어는 더욱 그러하다. 켈리는 어떤 신기술 이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는 혜택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결코 본 적이 없는 문제도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미디어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문제점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여 뉴미디어가 선교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기술문명 자체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인간의 모든 삶이 이러한 영향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뉴미디어를 어떻게 선교에 적용해야 할까? 선교학자 랄프 윈터(Ralph D. Winter)의 조언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랄프 윈터는 과거

---

<sup>42</sup> Kevin Kelly, 이한음 역, 『기술의 충격』 (서울:민음사, 2011), 300. 케빈 켈리는 과학 기술 문화 전문잡지 《와이어드》의 공동 창간자 가운데 한 명이며 오랫동안 그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서구 선교사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는 몇 가지의 실수를 언급하면서, '과학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적으로 간주한 것'이 실수라고 한다.<sup>43</sup> 랄프 윈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선교의 지난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선교사역에 그 당시의 첨단 미디어를 적절히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그 미디어들은 장점과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선교사가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지성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물론 이는 일부분의 모습을 통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사실 과학은 기독교 문화에 바탕을 둔 서양문화에서 발전했으며 불교나 다른 기타 종교와 굳이 비교해 보더라도 기독교가 없었다면 현대 과학이 이 만큼 발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Dinesh D'Souza 는 2007 년에 펴낸 책 <그리스도교는 어떤 점에서 그토록 위대한가?><sup>44</sup> 에서 과학과 종교 사이에는 아무 갈등도 없으며, 사실은 근대 과학이 성서의 가르침을 극적으로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학이 우리의 믿음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는 종교 신자가 과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

<sup>43</sup> Ralph D. Winter, 임윤택 역, 『랄프 윈터의 기독교문명 운동사』 (서울: 예수전도단, 2013), 431.

<sup>44</sup> Dinesh D'Souza , What's so great about Christianity?, Tyndale, 2007, p.93-101.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한다. 과학은 신으로부터 멀리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한다"고 주장했다.

Dinesh D'Souza 는 성경은 과학 설명서가 아니며 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은 무로부터 우주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만들었는가는 말하지 않으며, 과학은 그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디어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선교에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함과 동시에 과도하고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미디어(매체)가 바뀌면 수용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따라서 오늘날의 미디어 선교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할 정보(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매개하는 미디어와의 상관관계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 5) 현대문명의 최첨단 미디어와 접목된 선교차원의 부정적 문제 해결방향

1. 정통주의 신학이 진리의 견고한 반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현대에 유행하는 현대 신학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경험과 세계관과 가치의 향연을 위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 위태로운 신학의 무대 위에서 공허한 감정과 과장된 몸짓으로 예배 포퍼먼스를 행하고, 교회 경영 전문가로 변신한 목사로부터 세상에서의 풍요와 성공을 위한 교훈을 듣고, 세속적인 심리 치료 기법에 의한 자긍심 회복과 내적 치유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숫자적 성장을 위해 온갖 전략과 묘안을 짜내며,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인 양 구호와 세뇌 학습을 반복하는 일상들이 교회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현대교회 목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에서 신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신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교회이다. 그런데 신학이 교회와 강단에서 주변 변두리로 밀리고 있다. 교회에서 신학이 사라지면, 바른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결과 교회에 성경의 진리 대신 세상의 이론과 정책들이 판을 치게 된다.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할 신학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빈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신학 실종'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신학 실종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 고대의 이교적인 생각에 근접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속주의에 물든 복음주의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뿐이다. 데이비드 웰즈는 "신학 실종"<sup>45</sup>이라는 책에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신학이 중심에서 변두리로 쫓겨난 작금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신학의 3 요소는 신앙 고백과 성찰과 미덕의 개발로 이야기하였다. 즉, 신앙 고백이란 교회가 믿는

---

<sup>45</sup> "신학실종, 데이비드 웰스, 부흥과 개혁사, p.148 이하

내용의 교리를 농축하여 참된 진리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며, 성찰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인 싸움을 내포하는 치열한 반성을 말하며, 미덕의 개발이란 이러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생각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분리를 거부하는 데이비드 웰즈는 “신학 실종”이라는 책에서 영성이 미덕의 개발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가 분리되고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주의적인 삶이 담보되지 못한 죽은 정통과 같은 신앙 고백만 남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냉혈한 신앙 고백만이 자리하는 우리의 현실 또는 신앙 고백의 토대가 무너져 있는 인본주의적인 도덕론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성찰’이란 요소가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현대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와 이로 인한 세속화 등의 논리와 정서가 교회에도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인들의 신앙도 세속주의로 물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는 타협할 줄 모르는 소명감을 가져야 하는데, 목회자들 역시 마치 기업의 경영자와도 같은 마인드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회복될 때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달려 있다. 목회자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목회자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교회는 ‘타락’한다. 바른 목회의 모습을 청교도적 목회관에서 찾을

수 있고 또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회의 중심을 오직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다.

2. 재미란 무엇일까. 재미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떤 것은 재미있는데, 또 어떤 것은 재미가 없다. 왜 그럴까? 문화의 시대, 콘텐츠의 시대라 불리는 지금 사회에서 '재미'를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재미'는 우리 사회의 주류 화두가 되고 있다. 영화, 만화, 게임, 방송 프로그램 등 이른바 '콘텐츠'는 재미가 있으면 성공이고, 재미가 없으면 실패다. 그렇다면 다시, 재미란 무엇일까?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질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이것 저것 뒤져봐도 시원스런 답을 찾기는 어려운 질문이다.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에는 주저하게 만드는 '재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세계적인 게임 개발자 라프 코스터가 자신의 저서 (게임 디자인을 위한 재미 이론)을 통해 그가 15년 이상 게임을 개발하면서 찾아 낸 '재미의 비밀'을 풀어 놓았다.<sup>46</sup> 라프 코스터에 의하면 '재미'는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온다. 우리의 뇌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도전 과제를 주면 우리는 그 퍼즐을 풀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

<sup>46</sup> 라프 코스터는 현재 소니온라인엔터테인먼트의 수석크리에이티브임원(CCO)으로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빌 로퍼, <울티마>를 만든 래리 개리엇, <시빌라이제이션>을 만든 시드 마이어 등과 함께 세계 게임업계를 이끌어 가는 주요 인물 중의 하나이다

'재미'가 생긴다. 또한, 우리의 뇌는 뭐든지 '단순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우리의 뇌가 '단순화' 하는 과정이 바로, 패턴을 찾는 과정이다. 패턴을 찾아서 연습을 하고 숙달이 되면 우리는 '재미'를 느낀다. 반면 패턴을 찾지 못하거나, 패턴을 찾아도 연습이 안되거나 숙달 되지 않으면 재미는 사라진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패턴을 학습하면서 조금씩 약간 높은 정도의 도전들을 풀어가면서 성장해 가야지 재미가 더 해간다. 그래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신비함을 느낄 정도로 행복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기 때문에 재미있고 행복하기 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것을 큰 짐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안 믿자니 불안하고 믿자니 힘들어, 갈등 아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왜 믿는다면서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 왜 행복하지 못 한걸까? 그렇다면 이 부류의 사람들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믿는 자들도 잠깐의 불안과 힘들음이 있을 수 있다. 마치 배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에 불안해 하고 두려워 했지만 이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앞에서 오고 계심을 확인하고 바로 평강을 가졌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지속적인 불안과 힘들음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와 같은 부정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면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한다.

## 4. 세계화와 매스 미디어

### 1) 세계화의 정의

에모리 대학의 프랑크 레크너(Frank J. Lechner)와 존 볼리(John Boli)는 “20 세기 말에 세계화는 모든 대중적인 그리고 학자들 간의 토론에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였다.<sup>47</sup>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학자는 자신의 분야와 관련하여 세계화를 직, 간접적으로 다루었고 각자에 적합한 정의를 내렸다. 그 중에서 필자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두 명의 정의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로는 그들은 경제, 정치, 종교 등 특정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의 세계화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먼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前) 총리의 경제 자문이었던 안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세계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sup>47</sup> Frank J. Lechner and John Boli eds, The globalization Reader, 2<sup>nd</sup> ed.(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4), 1

세계화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러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세계적인 차원의 사회적 관계의 강화이다.”<sup>48</sup> 기든스의 정의는 물리적인 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계화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연관성이 없었던 두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sup>49</sup>

캠브리지의 또 다른 석학인 존 톰슨(John B. Thompson)도 세계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장소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 “세계화는...세계의 다른 두 지역들의 상관성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절차는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sup>50</sup>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장소 사이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민과 역이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그리고 국제 단체의 봉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스 미디어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영화 이외에도 케이블 TV와

---

<sup>48</sup>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1990), 64

<sup>49</sup> 이러한 그의 입장은 분명 메릴랜드 대학의 교수인 George Ritzer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계화를 기업이나 국가가 어떤 제국주의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는 Globalization과 그에 반해 같이 각 지역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는 Glocalization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던 방식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의 저서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2004)를 참조하라.

<sup>50</sup> John B. Thompson,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Stanford, CA: Stanford Press, 1996), 149

인터넷을 위시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미디어는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 다른 지역 간에 사회적인 관계를 증대시키는 세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2) 매스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미디어의 내용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은 건전한가? 폭력, 성(Sex), 언어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미디어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 연구에 관한 선구자로 알려진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미디어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종류의 미디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sup>51</sup>

같은 미디어라고 할지라도 신문과 책,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신문이나 책과 같이 활자에 주로 의존하는 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시각만을 사용토록 한다. 물론 신문이나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감각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시각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활자 미디어는 독자로 하여금 고도의

---

<sup>51</sup>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2<sup>nd</sup> ed.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4), 9, and *The Medium is the Message: An Inventory of Effects* (Corte Madera, CA: Gingko Press, 2001), 8.



논리를 요구한다. 셋째, 이와 같은 책의 논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독자는 반드시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은 일방적인 미디어이다. 물론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내용에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래에서 언급할 라디오와 같은 경우와는 구별된다.

라디오는 시각은 필요치 않고 대신 절대적인 청각을 요구한다. 또한 라디오는 특성상 책처럼 논리를 따라가기 위해 특별한 집중력을 요하지는 않는다. 어떤 내용을 놓쳐도 얼마든지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라디오는 활자 미디어와 달리 청취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전화로 청취자와 라디오 진행자는 생방송으로 통화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취자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실시간에 바로 개진할 수도 있다. 라디오는 수동적으로 청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능동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는 양방향 미디어인 것이다.

텔레비전은 책과 라디오와는 또 다른 종류의 미디어이다. 텔레비전은 시각과 청각 모두를 요구하지만 시각의 사용 방식이 다르다. 책을 읽을 때 시각이 논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는 변화무쌍한 동영상을 보고 느끼기 위해 시각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책이라는 미디어를 대할 때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각을 사용한다면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는 수동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화면을 보는 데 시각을 사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미디어의 특성은 인터넷 안에서 모두 종합되고 연결되며 발전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안에서는 읽고 보고 듣고 말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가능하다. 논리와 감정, 능동성과 수동성 모두가 공존한다. 한편으로 인터넷에서 논리적인 책들과 그것에 관한 여러 비평들을 접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경기, 음악 등을 보고 듣고 느끼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능동적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 하면 수동적으로 세상의 문제에 대해 방관하며 자신만의 가상 공간에서 은둔할 수도 있다. 이제 다양한 미디어의 독특한 특징을 통해 어떻게 세계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3) 매스 미디어에 의한 세계화의 두 종류

필자는 매스 미디어에 의한 세계화의 과정을 편의상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분류의 기준은 세계화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첫번째는 원심적 세계화(Centrifugal Globalization)로 각 개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세계화인데, 이것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외부로부터의 강제성 없이 개인

스스로가 세계화에 참여한다. 두 번째는 구심적 세계화(Centripetal Globalization)로 주로 거대한 서구 기업들이 문화 상품을 생산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수출할 때 발생한다. 원심적인 세계화에 비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 A) 원심적 세계화

인터넷 이전 시대에도 위성 방송 혹은 케이블 방송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송을 접할 수도 있었으나 그것은 대중적이지 못했다. 이유는 방송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시청할 수 없는 시간의 제약과 상대적으로 비싼 시청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파괴하고 저렴한 사용료로 인해 많은 이들이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자료를 찾고 다운로드를 받고 강의를 듣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쇼핑을 하는 등 실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의식을 하든지 못 하든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안에서는 국내외의 구별이 없고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아무도 그들에게 세계화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고 듣고 반응하는 모든 것은 이미 세계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facebook)이다. 이 웹 사이트는 2004 년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생이었던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아이비리그 대학생들만의 공간을 위해 만들었다. 2014 년 6 월 기준, 전 세계 13 억 2 천만명 이상의 활동 사용자(최근 30 일동안 그 사이트를 적어도 한번 방문한 사용자)가 활동 중인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sup>52</sup>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개념은 네트워크에 의한 개인 정보 교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장소에서 떠나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일을 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 만난 사람들도 학교나 직장을 옮기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공간을 극복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된다면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친지나 동료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서 다양한 사진과 자신의 현재 상황과 취미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친구들과 친밀함을 유지한다.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은 세계화를 가속화시킨다. 나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친구들은 더 이상 특정한 나라나 장소에 국한되어 살지 않는다.

---

<sup>52</sup> <http://newsroom.fb.com/company-info/>

그들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자신들의 삶과 경험을 세계 곳곳의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다른 나라에서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이곳에서 사건이 저곳에서 이슈가 된다.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지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화에 동참한다.

## B) 구심적 세계화

구심적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형성되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구심적 세계화라는 개념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문화적인 상품이 자국 내로 유입되어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로 유입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서 볼 수 있다. 미국적인 가치와 윤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는 전세계 각 지역으로 배급되면서 세계화를 부추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심적 세계화는 종종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획일화(Homogeneity)와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이다. 레크너와 볼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에 의해 조정되어 그 교묘한 영향력을 공중파를 통해 전세계 가장 먼 곳까지 뻗치고 있는 미디어는 자본주의 기업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안된 강력한 이미지와 사운드를 내세우며 미쳐 비판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온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sup>53</sup>

문화 상품은 비즈니스이다. 주로 미국과 유럽에 있는 거대한 미디어 회사들은 문화 상품을 만들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이다. 자신들이 만든 문화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윤리와 가치를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들에게 첫번째 고려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자국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레스터(Leicester) 대학의 도미니크 스트리나티(Dominic Strinati)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풍요와 낭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은 더 이상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대신 기업가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예를 들면 소수 인종) 혹은 주변 국가(흔히 말하는 '제 3 세계')에게 초점을 맞춘다.<sup>54</sup>

이와 같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서구 문화 상품이 비서구 국가로 유입될 때 많은 갈등을 낳고 있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그 문화 상품의 내용에 있다.

---

<sup>53</sup> F. J. Lechner and Bolieds, *The Globalization Reader*, 287.

<sup>54</sup> Dominic Strinati,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Popular Culture*. 2<sup>nd</sup> ed. (New York: Routledge, 2004), 53.

미주리(Missouri) 대학의 쿨딕 램팔(Kuldip Rampal)은 서구 문화가 인도에 준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냉정하게 평가하였다.

인도의 많은 사회학자, 심리학자, 교사, 정부 공무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성(性), 폭력 그리고 마약의 분야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위성 텔레비전에서 그려지는 관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에 붙들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55</sup>

그렇지만 구심적 세계화가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저널리스트인 존 믹레트와이트(John Micklethwait)와 아드리안 울드리지(Adrian Wooldridge)는 세계화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세계화는 거대한 경제적인 효율성과 번영뿐만 아니라 '자유의 개념'도 확장시킨다. 세계화는 사회들을 개방시키고 '압제받는 나라들'을 축소시킨다. 세계화가

---

<sup>55</sup> Yahya R. Kamalipour and Kuldip R. Rampal eds. Media, Sex, Violence, and Drugs in the Global Villag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1), 127

많이 진행된 세상에서는 더욱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들이 살기 원하는 곳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sup>56</sup>을 형성한다.<sup>57</sup>

이란에서는 종종 남녀 인권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소녀들은 불과 13 세가 되면 강제적으로 결혼하도록 강요당하고 남자들은 언제든지 원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아직도 불평등한 법이 남아 있지만 사실 1979 년 이란 혁명 이후로 이란의 여성들의 지위는 진전이 있어 왔다. 그 이유에 대해서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의 저널리스트인 나지 파티(Nazi Fathi)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① 여성에 대한 교육, ② 인터넷과 위성 방송의 영향 그리고 ③ 책,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통한 학습이었다.<sup>58</sup>

적어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구심적 세계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란은 21 세기에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이지만 일반인들이 인터넷과 서구가 제작한 문화 상품인 영화, 드라마, 책 등을 보며 세계화에 동참하는 것을 국가가 모두 제한할 수는 없다. 그 결과 특별히 여성의 인권이 낙후되어 있던 이란에서 많은 여성은

---

<sup>56</sup>정체성(正體性, identity)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한다.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sup>57</sup> F. J. Lechner and J. Boli eds, *The Globalization Reader*, 7-8

<sup>58</sup> Nazi Fathi, "In Theocratic Iran Women Show Increasing Determination to Push for Rights and Equality," in *Jakarta Globe*(14/15 February 2009), A13.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였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을 정리하면 현대 사회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매스 미디어를 통해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각각의 미디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미디어의 방식에 따라 발전된다. 개인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서구의 미디어 기업은 문화 상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세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매스미디어의 세계화에 복음 선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은 모두 성경에 기초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바탕을 둔 기독교는 참 종교이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거짓이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한 사이클에 맞추어 자신의 말씀, 영원한 진리를 특별하게 계시했다. 성경의 모든 구성요소는 무오하다. 모든 내용이 영감되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자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했다. 그 내용은 정확하며 안전하며 신뢰할 만하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거나 구술형태로 기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는 개념과 언어의 형식으로 전달되는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단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짓된 것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진리(롬 3:4)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딤후 3:16)도 진리의 말씀이다(요 17:17). 여기서 우리가 선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유태인들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고 본다. 성경의 언어는 인식언어가 아니라 고백언어라고 본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의미를 고백한 것이라고 한다. 고백언어란 사실과 거리가 먼 신화, 꾸며낸 영웅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를 강조한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성(그리스도의 도성인신, 동정녀 탄생, 대속죽음, 육체부활, 기적수행능력 등)을 부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리와 신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변화무쌍한 개인 경험을 절대화 할 수 없다고 본다.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적인 기독교를 배타적인 집단으로 단정한다. 죄 사함이나 영혼구원이나 영원한 생명 따위 보다 지상천국 건설과 사회정의와 윤리실천에 역점을 둔다. 복음보다는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신자화, 복음화가 아니라 인간화, 사회화에 열성을 보인다. 자유주의 기독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교회를 점차 세속 문화의 흐름에 종속되도록 만들었다.

세상과 문화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다한다는 미명아래 교리와 신학의 한계를 넓혔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교회가 세상과 문화를 변혁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 변화된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어쨌든 이 장을 나가면서 중요한 사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매스 미디어에 의한 세계화는 현대 문화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새로운 현대 문화의 특징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5. 현대 문화의 특징

### 1) 비주얼(Visual)

현대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도 비주얼이다. 활자보다는 이미지, 책보다는 동영상이 주류를 이룬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것을 통해 대화를 하였다. 그러므로 글을 읽지 못하거나 특정한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되었다. 반대로 라틴어와 같은 고등 언어를 습득하여 높은 수준의

책을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종류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 비주얼 문화는 이전의 책과 논리의 문화를 변화시켰다. 비주얼 문화는 논리보다는 사람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더 이상 높은 수준의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주얼 문화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철학책보다 현재 인기 있는 영화,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등을 보고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영화는 이러한 비주얼 문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가 자행한 대량 학살에 대해 다룬 킬링필드(1984), 엘살바도르의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는 신부의 이야기를 그린 로메로(1989), 1939년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에 이주한 후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취직시켜 그들을 구원한 오스카 쉰들러(Oskar Schindler)의 삶을 다룬 쉰들러의 리스트(1993) 등 많은 영화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일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킨다.

영화는 사실 기독교에서 선교를 할 때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9년 존 헤이만(John Heyman)에 의해서 제작된 예수 영화는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되었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9</sup> 특별히 이 예수 필름은 아직 글이 없거나 번역된 성경이 없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무려 2억 2천 5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sup>60</sup>

그러나 우리는 현대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이런 비주얼 문화도 이 땅에 기독교 문화를 심어야 하며 기독교 문화로서 대중문화를 이끌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 있다. 현대 대중문화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함과 동시에 기독교적 비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도 모르게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단점속에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방어적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는가 하면, 어제 두각을 나타냈던 풍조가 오늘 퇴조하기도 하는 현대의 비주얼적인 대중문화는, 다원적인 문화요소들이 융합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는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현상 밑에 존재하는 문화논리들이 그 외양처럼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몇 가지 사상에서 파생된 현상들에 불과하다. 재미위주나 인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나

---

<sup>59</sup> Johannes Merz, "Translation and the Visual Predicament of the "JESUS" film in West Africa, "i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ume XXXVIII, No 2(April 2010), 111.

<sup>60</sup> JESUS film Project 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http://www.jesuskfilm.org/>

현대인의 우상이 되버린 스타라는 현상이 나오기 까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은 인본주의<sup>61</sup>와 물질주의<sup>62</sup> 그리고 실용주의<sup>63</sup>가 그 바탕에 있다. 문제는, 우리의 문화의식을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 근원으로서 오늘의 문화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들이 얼마나 기독교적 진리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이다. 현대문화는 인본주의를 통해 인간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았으며 물질주의는 물질에 대한 가치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적진리보다도 우선적으로 놓게 되었으며 실용주의는 신앙의 실체조차도 실용성의 안목으로 파악해 버리고 있다. 이러한 사상들이 비기독교적인 것이 분명하고 또 우리 일상의 문화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밝히 드러낼 뿐 아니라 철저히 벗어 버려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2) 재미를 최우선으로 추구

비주얼 문화의 특성은 뒤집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양산한다. 윤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예는 대중 문화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윌리엄

---

<sup>61</sup>인본주의 - '인간다운 인간'을 주장하며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

<sup>62</sup>물질주의 - 물질이 인간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

<sup>63</sup>실용주의 - 모든 것을 실용적인 표준에서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 참과 거짓조차 결정

로마노프스키(William Romanowski)는 “대중 문화 상품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그들을 만족시켜야 하기에 제작을 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 분모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sup>64</sup>고 주장한다.

대중을 통해 상업적인 성공을 위한 텔레비전은 부적절한 비주얼 상품들을 양산한다. 폭력적인 장면 그리고 저급한 언어도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주얼 문화 상품은 탁월한 배우와 스태프에 의해 만들어지기에 많은 대중으로부터 용인되고 관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중 문화를 선택할 때 높은 지식을 추구하거나 교양을 함양하기보다는 재미를 우선시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만족을 얻기 원한다. 복잡한 논리나 고상한 이론은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아울러서 대중은 고귀한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것이 비주얼하고 재미있는 문화 상품 안에 담겨져 있어야 찾는다. 아무리 소중한 가르침이라도 만일 그것이 두꺼운 책의 형태로 담겨 있다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문적인 책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책들은 이와 같은 책들이 많다. 그럼 그들은 재미없이 힘들게만 공부하고 습득한단 말인가?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글들이 뻑뻑하게 들어있는 두꺼운

---

<sup>64</sup> William D. Romanowski, *Eyes Wide Open: Looking for God in Popular Culture*, revised and Expanded ed.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7), 92

책들을 통해 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꺼이 글들을 정독하며 반복적으로 읽게 된다. 그리고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은 분명 기쁨이며 더 나아가 희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경 역시 처음 읽을 때에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으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이 알게 되고 느껴지면서 일반적인 재미라는 모습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재미라는 대중적인 물결에 꼭 휩쓸릴 필요는 전혀 없다. 단지 재미만을 추구하는 일반 대중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다면 다소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경 원문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주석과 참고서적들을 알려주거나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스티븐 베스트(Steven Best)와 더글러스 켈러(Douglas Kellner)는 이미 1997 년에 출간한 책에서 “많은 사람에게 미디어 환상의 세계는 일상에서 접하는 현실보다 더욱 현실에 가깝다. 비디오 혹은 컴퓨터 게임은 학교나 직장보다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이다.”고 말하였다.<sup>65</sup>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학교에는 와 있지만 그들의 대화는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에서 보았고 경험하였던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많은 대중 문화 상품 중에서 특별히 재미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윤리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고상한 것은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아프리카의 여러 작은

---

<sup>65</sup>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The Postmodern Tur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7), 102



마을에서 상영되고 있는 서구의 드라마나 영화는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표현한 작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얼하면서 재미로 포장된 문화 상품이 전세계 곳곳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유통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 3) 선교적 현안

매스 미디어를 통해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문화는 분명 선교적으로 큰 도전이다. 더 이상 미디어 문화에 대해 단순히 '통제' 혹은 '금지'하는 것은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맥루한의 주장대로 내용의 적합성을 떠나 각각의 미디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미디어의 특성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특히 개신교는 오랜 시간 동안 활자를 주된 미디어로 사용하였다. 동방정교회나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특별한 성화나 성상을 교회에 비치하지 않았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교회 본당 정면에 있는 십자가와 벽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정도가 전부이다. 대신 개신교는 성경, 예배, 기도, 경건 생활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신교의 전통은 현대의 비주얼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신앙생활과 전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텔레비전은 24 시간 케이블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영화, 음악, 예술, 요리,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 얼마든지 원하는 분야를 즐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내용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동영상은 물론이요 그림도 없는 흑백의 두꺼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비주얼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경이 드라마와 영화와 비교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읽기 원한다. 하지만 비주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능동적으로 매일 성경을 정독하는 것은 곤혹스럽게 생각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오히려 그들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과 같이 수동적인 자세로 교회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논리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자 미디어인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 생활과 다른 개신교의 활자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또 다른 선교적 현안은 현대인들은 재미를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성장하였고 그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할지이다.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재미에만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다. 기독교는 재미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며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다. 기독교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삶의 활력소를 얻기 위해 일회성의 재미에 몰두하지 않는다. 사실 기독교와 재미를 절대시하는 대중 문화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나 현대 문화는 재미있고 기독교는 이와 비교할 때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재미로 목회하거나 선교하거나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 문화의 미디어는 모든 종류의 재미를 비주얼하게 실시간에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현대 문화의 재미에 깊이 몰입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고귀한 가치를 전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말한대로 재미와 기쁨을 나누어 생각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4) 재미만을 추구하는 뉴미디어 시대와 개혁주의 복음과의 차이에 대처해야 할 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담당할 때 단지 도구일 뿐이다.<sup>66</sup>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누구도 구원 시킬 수 없으며 또한 그 길로 인도할 수도 없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으며 미련한 도구인 우리들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절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어떤것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도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들을 사용하여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그 어떠한 상황과 도구를 사용해 이모저모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은 제 각각 다른 제자들의 성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히 그에 맞게 사용하셨다. 미국의 한 경영 컨설턴트 회사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 학력, 직업, 적성, 성격, 대인관계 등 수십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테스트 한 후에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서 예수님께 세상적인 보고서 형식으로 다소 재미있게 보고를 드렸다.<sup>67</sup> '귀하께서 추천한 사람들 대부분이 배경 및 학벌과 귀하께서

---

<sup>66</sup>G.I. 윌리엄슨 웨스트 민스턴 신앙고백서 강해 개혁주의 신행협회 p.51, 2003 년

<sup>67</sup> 이용주선교사 설교-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2010 년 8 월 28 일)

착수하고자 하시는 사업 형태의 직업 적성에는 미달된다는 것이 상담 관계자 모두의 의견입니다. 그들에게는 팀 사업의 개념이 없습니다. 관리 능력도 부족합니다. 장래에 대한 비전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을 위해서는 장래성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도자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도마에게는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심과 석연찮은 태도가 엿보입니다. 마태는 대 예루살렘 사업 개선 협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로마 정부의 세리가 되어 세금을 걷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는 신분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 그리고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는 과격한 기질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으며, 둘 다 조울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원자들 중 한 사람에게는 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는 능력과 기지를 갖춘 사람으로서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예리한 비즈니스 정신이 있고 상류층과도 교분이 두텁습니다. 그는 의욕도 크고 야망도 있고, 그것을 실행할만한 학식과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룟 유다) 귀하의 경리 담당자와 심복으로 채용할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추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꼭 그들을 채용해서 그들과 함께

귀하의 새로운 사업의 동역자로 쓰신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사업 성공의 전망은 극히 희박하다는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코믹하게 예를 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의 자격 미달인 12 제자들의 이 보고서의 분석은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맞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 사업의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왔다.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그것은 평가 보고서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항목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항목이란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 우리가 자칫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여 선교사역을 한다고 하여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들이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을 무기로 무장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 5) 하이브리드

문화는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특별히 세계화 시대에는 한 지역의 문화가 오랜 동안 그대로 보존되기보다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혼합된다. 그리고 그 혼합된 각국의 다양한 문화, 사상, 이론 등은 단순한 결합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가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갖는다. 레인 크로서(Lane Crothers)는 이러한 현대 문화의 하이브리드 특성이 서구와 비서구 간의 양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하이브리드 현상은 비서구 사회가 서구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양방향으로 진행된다.”<sup>68</sup>

20 세기 후반부터 한국의 문화적인 특징을 언급할 때 포스트모던(Postmodern),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그리고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혹은 후기 현대주의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사용자에 따라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모더니즘(Modernism)이후의 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절대주의, 보편주의, 이성주의로 모더니즘을 요약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반이성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 21 세기는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적인 요소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지만 여전히 이성을 중시하는 모던적인 요소와 전통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서구도 비서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에 한

---

<sup>68</sup> Lane Crothers, *Globalization and American Popular Cultur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7), 26

가지 대표적인 예는 '명상'(meditation)이다. 인도의 요가에서 기인한 이 행위는 미국 전역에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 년 미국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20,000,000 명 이상)의 약 9.4%가 지난 12 개월 안에 명상을 한 적이 있으며 이는 2002 년의 7.6%(15,000,000 명 이상)에서 상승한 것이다.<sup>69</sup> 명상을 선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명상과 기도를 병행하다가 결국 그들은 다양한 참여와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를 떠나 자유롭게 스스로 명상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sup>70</sup> 이와 같이 세계화는 서구와 비서구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지역 간의 차이점이 점차 사라지고 하이브리드되어 가고 있다.

총신대 조직신학 서철원교수의 『기독교 문화관』에서 저자는 성경적 혹은 기독교적인 문화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한다.<sup>71</sup>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無)의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

---

<sup>69</sup> NCAAM, Meditation: An Introduction "Uses of Meditation for Health in the United States

<sup>70</sup> Joel Stein, "Just Say Om," in Time (August 4 2003), 50

<sup>71</sup> 서철원, 기독교 문화관, 총신대학 출판부, p.30-48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적인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모방하는 수준의 것이며, 결코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온 독자적인 능력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자는 아담의 창조 행위는 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방식의 탐구와 그 창조 질서와 성질을 탐구함으로써 자기 생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한다. 결국 인간의 모든 학문의 탐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들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학문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눈을 가려버린 채 마치 인간이 발견한 학문적 진리가 모든 것이며, 절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적인 학문의 탐구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 위에 구축해가는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인 창조적인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떠난 학문과 문화는 결국 의미가 없다.

이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회정의, 문화,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상대적인 진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오히려 끊임없는 문제와 의문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학문과 문화, 사회정의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두 번째로 다양한 매스 미디어가 하이브리드되고 있다. 현대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활자 미디어가 아니라 영화, 텔레비전, 음악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비주얼 문화이지만 여전히 책과 신문 그리고 잡지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현재 많은 책이 매년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이전과는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많은 책이 고전 방식대로 종이에 활자로 찍어서 출간되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전자책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세계적인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Amazon)은 2007년 11월에 킨들(Kindle)이라는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어권의 책을 중심으로 더 이상 활자로 인쇄된 책을 구입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서 스크린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무거운 책을 여러 권 가방에 넣고 다니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전자책은 기존의 책값에 비해 그 가격도 저렴하다. 생산자와 독자 독자 입장에서든 해외에서 나무를 사서 종이로 만드는 모든 공정을 생략할 수 독자사이에 유통과 같은 중간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재정적으로 많은 절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책과 컴퓨터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2010년 4월 애플사에서 아이패드(iPad)를 출시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아이패드는 킨들의 기존 화면이 흑백에 불과했던 것을 컬러로 바꾸었으며 킨들이 책을 읽는 단순한 기능에

국한되었다면 아이패드는 인터넷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복합 기능을 선보였다.<sup>72</sup> 아이패드라는 한 가지의 기계 안에서 책과 신문, 인터넷, 영화,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는 하이브리드되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 하이브리드 문화에서 신문은 더 이상 단순히 활자 미디어로서만 존재하기는 어렵다. 신문은 영화와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상에 전자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문사는 다른 미디어들과 결합하여 신문에서 넘어서는 하이브리드 성격을 갖게 하였다. 인터넷상의 신문사의 홈페이지에는 많은 동영상이 접속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시각만을 사용하는 일방적 미디어였던 신문들이 인터넷상에서 다른 감각도 사용하게 하였고 게시판을 통해서 독자들과 대화하는 양방향적인 미디어로 거듭난 것이다.

애플의 아이패드에 이어 스마트폰에 대한 열풍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GPS로 위치까지 인식되고, 심지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열풍은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스마트폰에 다양한 종교관련 어플들이 생겨나면서,

---

<sup>72</sup> 여기서는 칸들과 아이패드의 기능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대 문화상품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 되어 가는 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제 예배시간에 당당히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성경이나 찬송을 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이브리드 성격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에서 현대 문화의 특성으로 하이브리드를 다루었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은 사실 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교회에는 남녀노소 그리고 출신 배경과 직업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 다시 말해 한 교회 안에는 활자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인터넷 비주얼 미디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까지 모두 공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리더십은 어느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추기는 어렵다. 이제 이러한 선교적 현안을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어떻게 공생애를 감당하였는지에 주목하기로 한다.

## 6.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선교를 위해 고려할 점

미디어 선교란 무엇일까? 모든 미디어는 세상에 출현하여 인간 소통에 유익한 점이 발견되면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삶 속에서 각각의 영역을 구축해왔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든 미디어를 아울러 미디어가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파악하여 복음전도와 선교에 활용하는 것이 미디어 선교라고 볼 수 있겠다. 동시에 미디어 선교는 그 특성상 매개체의 역할이므로 미디어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수신자 중심의 미디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인쇄 매체와 함께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영상매체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매스 미디어에 의한 대중문화가 형성되고 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 시기의 콘텐츠는 소수의 자격을 가진 생산자들에 의해 생산된 지식, 정보, 문화 등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확산시키는 일방향적 성격이 강했다.<sup>73</sup>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CMC, Computer-mediated-Communication)이 확산되면서 양방향·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와 지식은 소유자나 독점자가 없이

---

<sup>73</sup> 비판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661.

누구나 손쉽게 지식을 생산하고 웹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또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개발되면서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는 우리에게 중요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문화와 산업, 교육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sup>74</sup>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매스 미디어 시대의 공급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신자(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쌍방향 소통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수신자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자신의 기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콘텐츠 공급자는 수신자에게 자신의 콘텐츠가 선택되도록 다른 수 많은 공급자와 경쟁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신자의 생각에 맞추어 복음을 변형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그들의 변형과 거짓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하지만 변형시킨 다른 교훈과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어찌되었거나 그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의 기준은 바로 성경말씀과 다른 것이 되며,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성경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 되며,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 많은 구약 성경말씀을 인용하셨으며,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을

---

<sup>74</sup> **Synergy** is the creation of a whole that is greater than the simple sum of its parts. The term *synergy* comes from the Attic Greek word *συνεργία synergyia*

것을 말씀하셨으며(마 5:18), 그 분의 사역이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1:22. 4:14. 막 14:49. 눅 21:22. 요 12:38 등등). 성령님조차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신다(요 16:13).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그가 가르친 것과 그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으며, 성령이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리라고 하셨다. 바울은 자신들이 전하지 않은 말에 대하여 "다른 복음"이라고 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갈 1:6-9). 베드로는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다가 멸망에  
처할 것을 경고하였고(벧후 3:16), 사도요한은 말씀에서 가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계 22:18-19).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이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경고와 책망은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베드로는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다고 하였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도 거짓교사나 거짓선지자가 있었으며,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이 있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셨다. 이들의 특징은 언제나  
"가만히 들어 온다"(갈 2:4, 유 1:4). 또한 말씀을 변질시켜 왜곡시키는 데에 있다.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 1:11-12). 과연 아무렇게나 예수만 믿으면 되고

성경말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해야할 수 있는가? 성경을 배제한, 성경을 증거하지 않는 예수를 믿어도 무방한가?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딤후 3:15). 2000 년전부터 지금까지 다른 예수가 있으며, 다른 영이 있으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바꾸며,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무오성을 믿고 제대로 알기 위해 배우며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그들을 대적하는 전신갑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2) 복음도 하나의 콘텐츠로 존재

뉴미디어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에서 뗄 수 없는 것은 스마트 기기들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와 콘텐츠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유통되고 소비된다. 뉴미디어 시대에서 수신자는 동시에 정보의 생산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콘텐츠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의 손에 바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넘쳐나는 콘텐츠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콘텐츠는 호기심을 먼저 유발하기 위해 자극적으로 변해간다.



스마트 기기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콘텐츠도 여러 콘텐츠 가운데 섞여있다. 따라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콘텐츠와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복음적인 콘텐츠가 세상의 일반적인 미디어 콘텐츠와 같이 공존해 나가지는 만만치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그 콘텐츠는 복음적 완성도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비기독교인들을 위하여 복음적인 차원뿐 아니라 비기독교인의 안티 기독교(Anti-Christian)화 되고 있는 요즘 그들을 통한 사단의 활동을 막아야 한다. 지금 많은 외부 세력들이 기독교와 교회, 진리를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에선 안티기독교 여론이 확산되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다. 악한 영들과 불의한 세력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 선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콘텐츠를 단번에 완벽하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세상의 좋은 콘텐츠도 한 번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선과 개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최신 스마트기기와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선교는 물론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고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복음사역도 현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진행해야만 한다.

## 7.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선교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의 일과 삶의 형태는 과거와 많은 면에서 변화되었다. 교회가 이와 같은 변화 상황에 대처하면서 적절한 미디어 선교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를 선교인재로 양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중의 한 가지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 그곳 문화에 익숙하도록 하였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성령께서 그를 세워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삼기위해 그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방지역에서 태어난 이중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 준비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문화 적응과 대처를 위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선교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 앞서 말한대로 하나님은 현 시대에 맞는 상황과 문화 및 문명의 기기들을 인간들이 만들도록 허락하셨고 또한 복음 사역을 담당하기 위한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사용하실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미디어이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기술문명 시대의 교회가 젊은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sup>75</sup>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i) 과학, 테크놀로지, 건강 그리고 공공정책에 전문적으로 종사 하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ii)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분야에 참여할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신학적으로 신중하게 제시 하도록 한다. 신학교는 커리큘럼에 이러한 분야들을 포함시켜 미래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새로운 테크 놀로지에 대해 정확한 기독교적 비판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미디어 선교는 교역자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재발견하고 함께 사역해야 한다.<sup>76</sup> 평신도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도록 동기를 부여 하고 파송해야 한다.

## 2) 선교적 교회에 기반을 두는 미디어 전략

---

<sup>75</sup> <http://www.lausanne.org> 케이프타운 서약, IIA.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증거하기, 6. 진리와 부상하는 기술문명들에서 인용.

<sup>76</sup> 이용원, “평신도와 선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서정운 명예총장 은퇴기념 문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98.

'선교적 교회론'은 단순히 교회가 열심히 해외선교를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선교는 단순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 입각한 선교적 삶은 예배와 전도와 나눔과 섬김이 균형을 이루는 삶의 자세를 요구한다.

미디어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미디어가 단순히 교회의 사역을 돕는 부가적 기능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미디어가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대부분의 교회가 만들어놓은 교회의 홈페이지는 매우 중요한 선교의 수단이다. 비기독교인들이 아무리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생소한 교회 문턱을 넘어서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접근하기도 쉽고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회 홈페이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선교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 홈페이지는 대동소이하며, 기존의 교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기존 교인들에게 교회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앙 성숙을 위한 필요도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적 구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스마트 기기가 거의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진 지금에는 페이스북 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선교적 삶을 나누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소그룹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sup>77</sup> 선교현장과 교회 그리고 선교사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선교에 협력한다면, 이러한 융합을 통해 선교의 방법과 내용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문화를 좀 더 쉽게 접하면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 모든 성도의 삶의 절정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일인 예배가 사제 중심의 형식적인 천주교의 예배, 또는 개인의 뜨거운 감정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오순절 계통의 예배 및 개인주의적인 예배로 흐를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 쌍방적인 교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언약이 종주권적 성격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지만 사람을 그 파트너로 삼아서 순종을 요구하는 쌍방적인 것이라는 사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

<sup>77</sup> 정재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 (서울: SFC, 2013), 131.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적 예배의식'(covenantal liturgy)의 특징을 갖도록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 십계명은 인간이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경배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다. 예배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경외하는 자가 됐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만을 경외함이 마땅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최고의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은 인간 누구도 높임을 받는 말이나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한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소수 그룹으로 이어지는 셀그룹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는 성경지식을 갖고 있는 담당자의 가르침으로 인한 문제와 함께 자율성에 의한 인간관계 중심의 모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교회의 질서 유지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위하여 예배와 가르침은 성직자의 인도아래 교회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 3)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에 대한 대비

우리는 이제 전기가 없는 세상, 컴퓨터가 없는 세상, 휴대전화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현대인의 삶은 기술문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도 인간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결국 모든 기술문명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고, 관계성 확장의 용이함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의 미디어로 정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보다는 인간의 삶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의 현대사회는 집단보다 개인이 중시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가 '전문화되고 개성이 넘치는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종교성도 바뀌게 되며 제도 종교의 의례, 가르침, 계율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조직도 여기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미디어 선교는 이를 도와 선교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기반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들은 조직을 소그룹 네트워크 형태로 신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 운동의 구조는 각각의 소그룹이 자율성을 가지며 동시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소그룹 활동은 구성원들 사이에 평등한 인간관계 아래에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의 뉴미디어는 이러한 인간의 삶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기술과 기법들도 이러한 것을 가능 하게 할 것이다. 미디어 선교는 이러한 인간사회의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복음의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 4) 소셜 미디어를 교육 선교에 적용

선교에 있어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을 통해 현지 지도자를 양성시키고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는 변할 수 없으나 교육의 수단과 방법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교육은 교수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적 소통이 중요하며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도구들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 기기는 특별히 수신자 중심의 교육에 강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손안의 미디어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강의자와 학습자들 간의 조율을 통해 강의실을 넘어 대화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서 정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수 많은 정보 속에 과연 어떤 정보가 옳고 그른가의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며 특히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 강의자가 없는 학습자간의 대화와 토론으로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인한 결과가 만들어 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신학에서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학습자로부터 배운 기억속에서 찾아야 하고 활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교현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의 세대는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크놀로지를 접하면서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이 그들의 친구이자 활동의 도구이며 활동의 장(場)인 세대들이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와 또는 무엇인가에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인다. 따라서 교육에서도 이러한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과 환경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 8. 하나님 나라와 비유

### 1) 비유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보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선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행할 때 당시의 문화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1 세기 팔레스타인 문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문화에는 많은 모순점이 있고 최악으로 인해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소중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러 차례 선포하였다. 복음서에는 겨자씨, 누룩,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 등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비유가 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 마드레인 보세르(Madeleine I. Boucher)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하였다.

예수는 이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중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어 익숙한 장르를 탁월하게 사용하였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비유들을 웅변가들, 정치가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사용하였다....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들과 현인들에 의해 퍼뜨려졌다. 그 비유들은 구약성경의 가장 오래 된 책들에서까지도 언급되어 있다. 또한 예수의 동시대에 있었던 유대교 랍비들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였다.<sup>78</sup>

---

<sup>78</sup> Madeleine I. Boucher, *The Parables* (Wilmington, DE: Michael Glazier, Inc., 1981), 11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대화 방법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공생애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상하거나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에 예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익숙한 비유를 통해서 증거하였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대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한 문화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였다.

요하킴 예레미야스(Joachim Jeremias)는 비유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비유의 원래 의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수의 비유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인성과 사역에 관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sup>79</sup> 비유란 단순히 듣기 편하도록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가 단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보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 비유는 듣는 이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라이트(N. T. Wright)도 “비유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도전을 주었다.

---

<sup>79</sup> Joachim Jeremias, *The Parables of Jesus*. 3rd revised ed. (London: SCM Press, 1972), 230.

그것들은 새로운 실천을 이끌어 내었고 상징적인 세계를 새롭게 정렬하였으며 기존의 이해의 틀을 깨었고 새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주장하였다.<sup>80</sup>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3 장 44-46 절에서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와 좋은 진주에 비유했을 때 그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극적으로 결단하기를 기대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재하였다. 일반인들에게 중간 지역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밖에 머무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둘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곳에서의 문제이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1 세기의 유대인들에게 결정을 하도록 비유를 통해 말씀하였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대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은유법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강권하는 초청이었다.

## 2) 겨자씨 비유

---

<sup>80</sup> N. T. Wright, *Jesus and Victory of God*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6), 229.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였던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알랜드 홀트그랜(Arland J. Hultgren)은 겨자씨가 갈릴리 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임을 지적하였다. 겨자씨의 지름은 불과 0.075 인치밖에 안되지만 나중에 자라면 보통 6-12 피트 정도의 나무로 성장하고 큰 것은 15 피트 정도에 이른다.<sup>81</sup>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겨자씨가 처음에는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던 것이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개념을 겨자씨 비유에서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큰 나무이다. 보세르를 비롯한 많은 학자는 겨자씨 비유에서 큰 나무에 많은 새가 깃들이는 이미지는 구약성경에서 빌려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별히 그들은 에스겔 17 장 22-24 절 그리고 다니엘 4 장 10-27 절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sup>82</sup>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

---

<sup>81</sup> Arland J. Hultgren, *the Parables of Jesu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2000), 395

<sup>82</sup> M. I. Boucher, *The Parables*, 74, Donald A. Hagner, "Matthews Parables of the kingdom," in *The Challenge of Jesus' Parables*. Richard N. Longenecker ed.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2000), 114, A. J. Hultgren, *The Parables of Jesus: A Commentary*, 396, and J. Jeremias, *The Parables of Jesus*, 149 등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다.

큰 나무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 혹은 당시 절대적인 왕들의 통치로 상징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가 다 자란 후의 큰 나무에 비유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적합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비전도 겨자씨 비유에 담고 있다. 크랙 블롬버그(Craig L. Blomberg)는 다 자란 겨자씨 나무에 각종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을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들도 포함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sup>83</sup>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왔으나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 하지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을 넘어서 전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큰 나무와 그 곳에 깃들이고 있는 다양한 새로 표현한 것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쉬우면서도 바르게 보여 준 비유인 것이다.

## 9. 나가는 말

---

<sup>83</sup> Craig L. Blomberg, *Interpreting the Parables*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90), 285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복음은 시간 문제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OS 방송, 즉 스마트 폰의 자체 앱을 통한 선교 방송을 통해 중국의 한 청취자가 선교 방송을 잘 듣고 있다며 연락이 온 적도 있다.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요, 일본 등에서도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을 듣고 은혜 받고 있다는 청취자의 연락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이제 매일 손에 갖고 있는 스마트 폰을 통해 움직이는 세계를 향해서, 서구와 부유국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동 및 아프리카, 빈민국에도 스마트 폰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머지 않아 북한은 물론 드디어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이 작은 스마트 폰은 보급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 선교 사역의 방향도 예수님처럼 그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그러면 스마트 폰에 있는 종교관련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장 많은 것은 성경이다.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이다. '북앤딕-성경', '가톨릭성경', 'NIV 한영(개역개정판)', '한글성경 개역개정판', '모빌리스 성경 개역개정판' 등 다양한 성경을 유료 또는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21 세기 새찬송가 전집 악보곡 과 MR 까지 들을 수 있는 어플도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찬송가 가사집, 개역찬송가 악보집 등이 있으며, '어쿠스틱 라이브 워십-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워십베스트 25', '트리니티 라이브워십' 등의 어플도 유료로 다운 받아 음원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이야기'로 말씀을 통한 영어공부도 가능하다.

미국 플로리다 중부에 있는 메가처치인 노슬랜드 교회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성도들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예배 실황을 중계 하고, 이전 예배의 동영상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폰의 제 3 세대 또는 제 4 세대 (4G)네트워크와 와이파이, 아이팟터치의 와이파이가 사용가능한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디지털 혁신 담당자인 네이션 클라크 는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든, 수십 명이 모이든, 수백 수천명이 모이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한 후 “사람들이 기술을 통해 하나님 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미디어 문화의 확산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활용으로 목상의 글, 신학적 고민, 기도가 공유되고, 성경공부, 특별헌금모금 등도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소통과 교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전부터 있었던 교회의 그룹이나 구역 활동도 SNS 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게 드러난다. 미디어를 통한 예배와 경건생활의 접근성은 강화됐으나, 실제 공예배나 기도생활 등 교회 안의 물리적 교류가 약화됐다. 즉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확산된 것이다. 또 SNS 를 통한 기독교인들 사이의 감정 악화, 지나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단과의 접촉이나



잘못된 정보의 전파와 공유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의 공적 예배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성도간의 교제는 꼭 교회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모이기를 힘써야함은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단지 몸이 아프다든지 출타 중 부득불 주일 예배를 모교회에서 볼 수 없는 환경에 한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예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선교적인 차원에서 불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일단 스마트기기를 통한 간접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되어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교회도 인터넷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새로운 '선교적 도구'로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주일만 예배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또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단들이 스마트 폰 어플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호와와의 증인'이 '날마다 성경을 검토함'이라는 어플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알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교회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이단들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교회에 대해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라도 기독교 관련 어플들의 개발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은 예배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 놓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청년들, 혹은 성도들의 모습이 익숙하지도 않고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른다. 또한 전통의 예배 방식이 주님을 만나는데 더 좋다는 생각이 들수 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외면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것을 '선교적 도구'로 인식하고 세상과, 또한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미디어 선교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해법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다.

현대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들은 매일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세계화된 비주얼 문화와 재미를 최우선시하는 문화 그리고 하이브리드 문화는 교회의 문화와 많은 괴리감이 있다. 그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게토(ghetto)<sup>84</sup>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일면의 죄의식을 가진 채 계속해서 현대 문화를 즐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다. 물론 예수는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지는 않았지만 동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

<sup>84</sup> **게토** (ghetto) 는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또는 소수 종교집단이 거주하는 도시 안의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빈민가를 형성하며 사회,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기에 유럽에서 설치한 유대인 강제거주지역, 나치 독일이 만든 유대인 강제수용소, 미국에서 흑인 등이 사는 빈민가가 게토에 속한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현대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부르신다. 그 분이 들려 주셨던 많은 비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처럼 동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강권한다.

미디어를 통한 선교가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변화의 물결을 잘 수용하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우리는 이 시대의 미디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예수님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3)고 말씀하셨다.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제대로 선교할 수 있다. 동시에 오늘의 시대를 잘 알아야 이 시대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세상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그 문제점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즉 어느 시대에든지 기술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기 보다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더 든든히 하고 확실히 해야 한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행 3:6)말하였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세상과의 소통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현재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과의 소통은 아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점검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전 2:7)고 하였다. 오늘의 시대를 정보 시대라고 일컫지만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발달한다고 하여도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달방법이 필요하기에 이 시대의 미디어를 연구해야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은 또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 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며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6).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도 진정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다. 다니엘이 받은 묵시는 종말의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 해보게 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 마지막 때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맬 것이다. 물론 그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며 성경만이 그들이 찾는 해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찾고, 무엇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찾아서 오게 될까? 그들 손에 들고서 언제나 정보를 찾고 검색하는 데 익숙한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가 첫번째 경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방식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선교를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참고 문헌

Best, Steven and Douglas Kellner. The Postmodern Tur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7.

Bevans, Stephen B.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Blomberg, Craig L. *Interpreting the Parables*.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90.

Boucher, Madeleine I. *The Parables*. Wilmington, DE: Michael Glazier, Inc., 1981.

Crothers, Lane. *Globalization and American Popular Cultur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7.

Giddens, Anthony.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1990.

Hagner, Donald A. "Matthew's Parables of the Kingdom." in *The Challenge of Jesus' Parables*. Richard N. Longenecker ed.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2000: 102-24.

Hultgren, Arland J. *The Parables of Jesu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2000.

Jeremias, Joachim. *The Parables of Jesus*. 3rd revised ed. London: SCM Press, 1972.

Kamalipour, Yahya R. and Kuldip R. Rampal eds. *Media, Sex, Violence, and Drugs in the Global Villag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1.

Lechner, Frank J. and John Boli eds. *The Globalization Reader*. 2nd ed.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4.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2nd ed.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4.

\_\_\_\_\_. *The Medium is the Massage: an Inventory of Effects*. Corte Madera, CA: Gingko Press, 2001.

Merz, Johannes. "Translation and the Visual Predicament of the "JESUS" Film in West Africa." i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XXXVIII, No. 2, April 2010.

Ritzer, George.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revised ed.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2004.

Romanowski, William D. *Eyes Wide Open: Looking for God in Popular Culture*. revised and expanded ed.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7.

Strinati, Dominic.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Popular Culture*. 2nd ed. New York: Routledge, 2004.

Thompson, John B.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Stanford, CA: Stanford Press, 1996.

Winner, Lauren F. *Real Sex: the Naked Truth about Chastity*.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5.

Wright, Nicholas Thomas.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6.

Fathi, Nazil. "In Theocratic Iran Women Show Increasing Determination to Push for Rights and Equality." in *Jakarta Globe*, 14/15 February 2009, A13.

Grossman, Lev. "2010 Person of the Year." in *Time*, December 27-January 3 2010: 32-57.

Hanes, Stephanie. "Africa's Mud-Hut Movie Houses." in *Jakarta Globe*, 23 February 2009, C4.



Stein, Joel. "Just Say Om," in, August 4, 2003: 48-56.

<http://www.jesusfilm.org/> (JESUS Film Project 의 홈페이지)

안홍철. "미디어는 메시지다?" 『한국기독교공보』 제 2854 호. 2012.06.13.

이광순. "편집의 글." 『선교와 신학』 제 27 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

이용원. "평신도와 선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서정운 명예총장 은퇴 기념 문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한상용. "뉴미디어 시대의 문화와 선교." 『기독교사상』 제 38 호. 1994.7.

황병배. "미디어 선교를 통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선교신학』 제 26 집. 서울:  
올리브나무, 2011.

김정탁. 『미디어와 인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비판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윤승은. 『정보통신용어사전』. 서울: 일진사, 2008.

이병화. 『사이버대학 핸드북』. 서울: 북촌미디어랩, 2009.

정재영. 『한국교회 10 년의 미래』. 서울: SFC, 2013.

조윤희 편저. 『정보사회론』. 서울: 신지원, 2013.

Frost, Michael. Alan Hirsch. 지성근 역.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IVP, 2011.

Kelly, Kevin. 이한음 역. 『기술의 충격』. 서울: 민음사, 2011.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New 107 정기목  
뉴미디어 시대와 미디어 선교

York: McGraw-Hill, 1964.

McLuhan, Marshall.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Merz, Johannes. "Translation and the Visual Predicament of the "JESUS" film in West  
Africa," i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ume XXXVIII, No. 2, 2010.

Negroponte, Nicholas. "디지털 컨버전스의 최전선과 미래 전략." 2004 년 서  
울디지털포럼(SDF) 기조연설.

Schmidt, Eric. Jared Cohen. 이진원 역. 『새로운 디지털 시대』. 서울: 알키, 2013.

Tapscott, Don. 이진원 역. 『디지털 네이티브』. 서울: 비즈니스북스, 2009.

Wilson, Wilter P. *The Internet church*. Nashville: Word Publishing, 2000.

Winter, Ralph D. 임윤택 역. 『랄프 윈터의 기독교문명운동사』. 서울: 예수전 도단, 2013.

『조선일보』. Weekly BIZ. “인터넷, 대학 담장마저 허물다.” 2013. 04.15.

『조선일보』. 2013.7.5. C1 면.

<http://ko.wikipedia.org/wiki/TED>

<http://www.lausanne.org>

<http://www.naver.com> 검색어: 미디어(Media)108 선교와 신학 32 집